

[H 갤러리]

JANUARY COLLECTION

1. 1. – 1. 31.

PHILIP. HAN.

Marc Chagall(1887 – 1985, 러시아 제국)

1. 1. 토.



1967. Sunset. artsy.com

새해 첫날 첫 커피를 내렸다. 첫 번째 카카오 톡 메시지는 동해 일출 사진이었고, 내 첫 번째 답변은 와우~였다. 첫날여서 새 옷을 입고 문밖으로 처음 나섰고, 첫 번째 만난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했다. 하지만 반가운 맞장구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는가 싶다. 나도 살짝 민망했다. 그도 나도 새해 첫 겸연쩍음이다. 이런 일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새해 첫 다짐으로 분위기를 환기했다.

그 사람에게 새해 안부를 보내고 싶었지만 이내 그 마음을 거뒀다. 새 날 첫 번째 망설임이다. 쌀 씻은 물을 개수구에 부으면서 그래도 인사는 할까 첫 미련도 떨었다. 밥솥이 첫 번째 질주를 하는 사이 노트북을 열고 첫 검색어로 SUNSET 을 입력했다.

새해 남아 있는 날 수만큼 그림이 쏟아졌다. 그중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작품이 샤갈의 1967 년 작 SUNSET 이다. 샤갈이 80 세에 그린 작품이다. 1944 년 그의 뮤즈이면서 첫 부인인 벨라 로젠펠트가 죽고, 1952 년 만난 발렌티나 바바 브로드스키와 재혼한 사실에 비춰보면 작품 속 여인은 바바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바다에 잠긴 붉은 태양, 그 위 붉은 꽃다발과 붉은 옷을 입고 있는 바바에게 샤갈은 자기 사랑을 온전히 안기고 싶은 심정을 말하지 않아도 느낀다. 세 오브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단색 처리한 것을 보면 그렇다. 일편단심 바바를 향한 마음 같았다. 한데 작품 우상단 한 여인이 눈에 띈다. 혹시 벨라일까. 바바를 위한 작품 속에 샤갈은 벨라를 출연시킨 것일까.

벨라는 샤갈의 마음 깊은 곳에 있을 뿐이다. 그 심경을 비취색 바다 수면에 띄운 것이다. 이를테면 회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런 벨라가 두 손 모아 내민 바구니 안은 선물로 가득했고, 총천연색이다. 마치 벨라도 우리 둘을 축하하고 있다는 말을 바바에게 샤갈은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샤갈의 사랑하는 마음이 첫사랑이 내린 듯 내 마음으로

들어와 새해 첫 희망을 안긴다. 올해 중 그 사람을 그 마을에서 만날 것 같다.



Bella & Chagall / Chagall & Baba

Marc Chagall(1887 – 1985, 러시아 제국)

1. 2. 일.



1960. Lovers With Red Sun. phillips.com

1960 년은 샤갈에게 어떤 해였을까. 그 세세한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작품 속 두 남녀 모습은 벨라와 샤갈인 점은 쉽게 눈치챌 수 있다. 1944 년 벨라가 병사하고 샤갈은 (기록에 따르면) 9 개월 여 동안 붓을 잡지 않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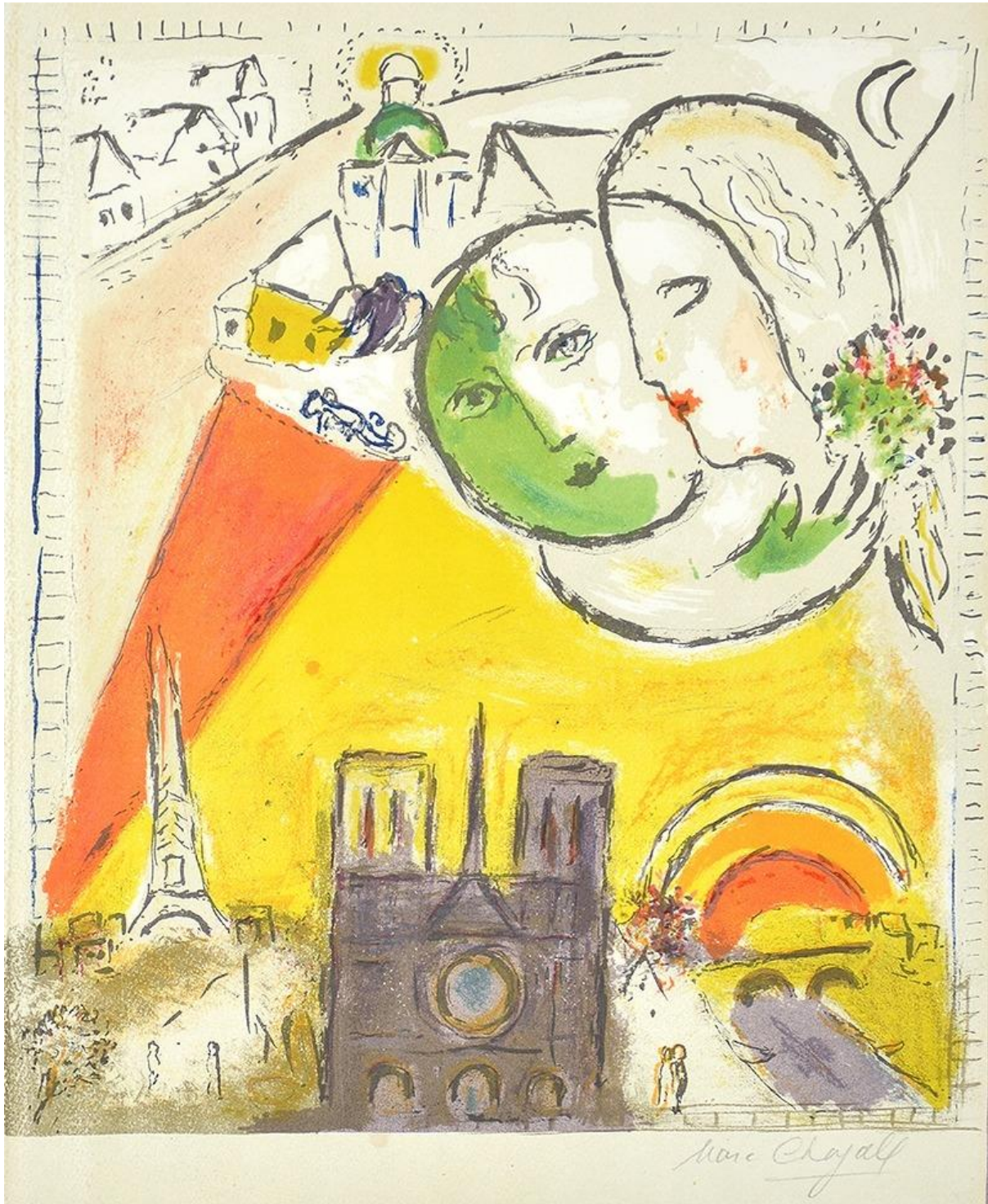
아내이기 전에 뮤즈를 잃은 상실감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알 수 있다. 여전히 벨라를 그리워하고 애기처럼 품속으로 파고들고 싶은 눈 감은 샤갈 모습이 애처롭다가도 저리 좋을까 싶어 부러움도 있다. 여전히 벨라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심경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샤갈은 태양의 붉은 상징을 벨라와 자신에게 오롯이 입혔다. 사랑은 저렇게 뜨거운 것이로구나. 아차, 그 흔한 사실을 여태 잊은 듯 살았구나 싶다. 이제 그러지는 말자. 사랑 참 되고 슬프다 해도 남은 생애 사랑 빼면 또 뭘이 중하고 남는 것이 있을까.

샤갈의 사랑만큼만 사랑하며 살아도 나날이 행복한 날이 될 것이다. 눈 감은 샤갈처럼 나도 눈을 감고 그 사람 품을 찾으면 눈 뜨지 않으려다. 샤갈처럼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말이다.

Marc Chagall(1887 – 1985, 러시아 제국)

1. 3. 월.



1954. On Sunday

어느 일요일 한낮, 샤갈은 지난 9개월 여 동안 폭 젖은 마음 축 처진 어깨를 말리러 파리 중심가로 나섰다. 샤갈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아름다운 도시 정경과 풍광만이 아니었다. 곳곳 명소에서 사랑을 밀어하는 연인을 보며 아니나 다를까 벨라를 추억한다.

벨라가 살아생전 보지 못한 달라진 에펠탑이며 개선문 · 노트르담 대성당 · 몽마르트르 언덕과 풍네프 다리 위에서 꽃다발을 벨라에게 안기며 결혼 30 주년을 축하하는 샤갈의 모습은 행복하기 그지없다. 그런 샤갈의 사랑이 벨라의 볼을 발그스레 만든다. 차갑게 식어가던 벨라의 두 뺨을 샤갈은 이 작품을 빌어 생기를 불어 넣고 온기를 담은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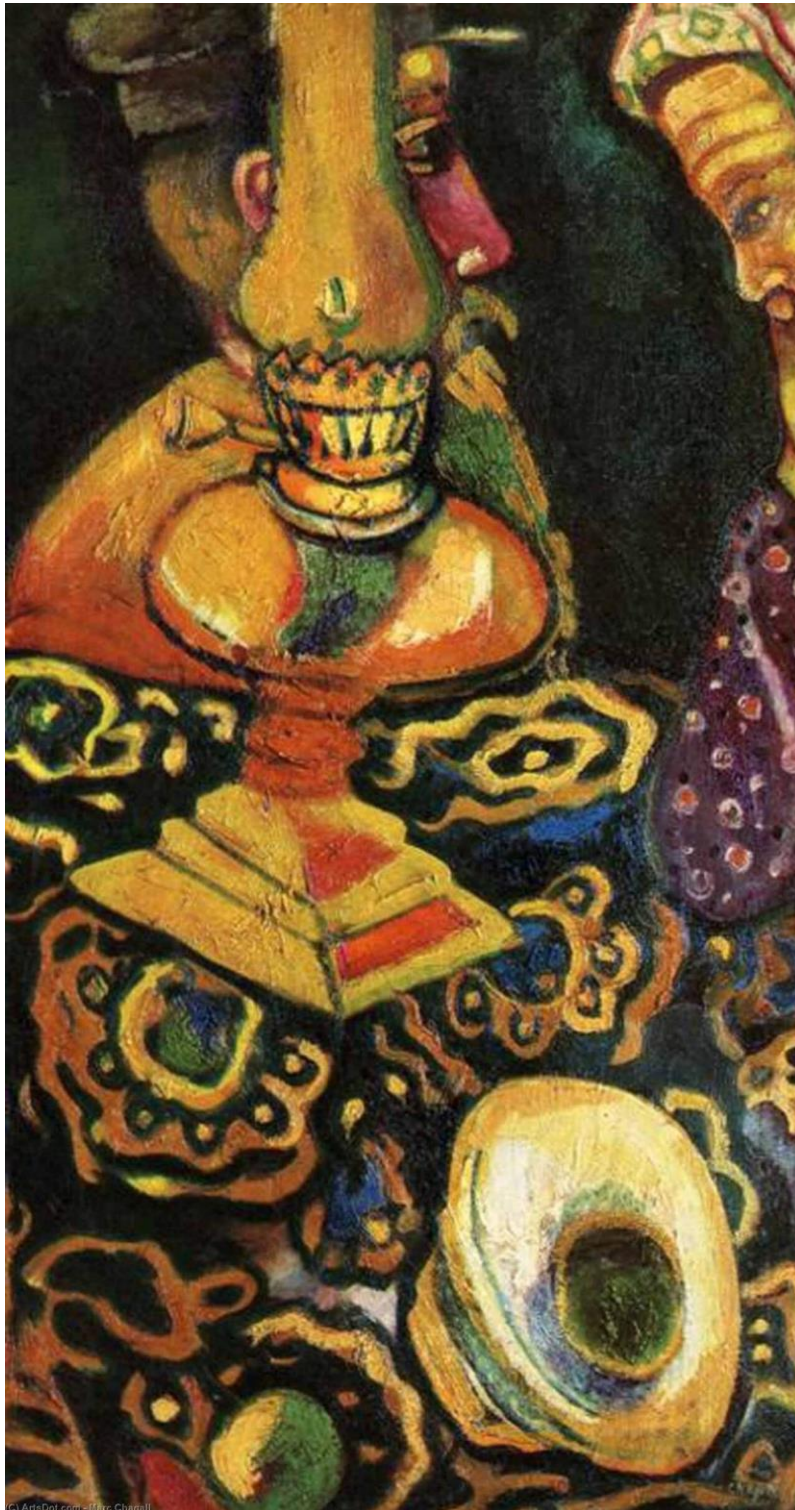
사랑은 샤갈처럼 추억하는 것이로구나. 아뵘싸 내 가슴이 미어진다.

그사람을 추억할 만한 에펠탑 같은 개선문을 지난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곳이 내겐 없는 일이 몇 해를 지나지도 않았는데 쓰라릴 일일 줄이야.

몽마르트르 언덕 비슷한 꽃이 천지로 내려앉은 비탈진 언덕배기가 유일한 기억이라니 애절한 이 마음을 무엇으로 달랠까 싶다. 어쩌면 샤갈도 지금 내 심정 같아서 일부러 파리 곳곳을 누비고 다닌 것일 것이다. 발길 닿는 곳마다 눈을 감은 채 벨라에게 못 연인처럼 사랑을 고백했을 것이고, 그 정표가 이 작품 On Sunday 이지 않을까. 이 작품을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배경 색상이 온통 밝고 환하고 비로소 숨을 고르고 편히 쉬는 샤갈의 모습이기에 더욱 그렇다. 1944년 벨라가 죽고 1년 여 만에 붓을 든 작품이기에 더욱 그렇다.

Marc Chagall(1887 – 1985, 러시아 제국)

1. 6. 목.



1910.Still life with lamp.

1910년 샤갈은 비나베르 후원으로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다. 예술가 거주 지역 라 튀슈에서 파리를 떠나는 1914년까지 거주했다. 라 튀슈에서 샤갈은 큐비즘에 입문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독특성을 만드는 토대로 삼았다. 1911년 샤갈은 관전 전람회에 반대하여 독립적인 창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설립한 앙데팡당 전에 이 작품 Still life with lamp 를 출품했고,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당시 혁신적인 예술 운동에 앞장 선 전위파 화가와 시인은 샤갈 작품을 극찬했다. 이를 계기로 샤갈은 1914년 베를린에서 첫 개인전을 열었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리고 1915년 그의 뮤즈 벨라와 결혼을 한다.

Marc Chagall(1887 – 1985, 러시아 제국)

1. 8. 토.



1907. Young Girl on a Sofa (Mariaska). 92.5x72

1887년 7월 7일, 샤갈은 현재 벨라루스 당시 러시아 제국 비테프스크 지역에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모이세 세갈(Moyshe Shagal)이다. 샤갈 작품 중 가장 초기 작품은 1906년 Old Woman with a Ball of Yarn 인 듯 싶다. 이보다 앞선 작품은 내가 찾은 바로는 1904년 Standing Nude 데생뿐이다.

샤갈의 유년기를 키워드로 나열하면 이렇다. 유대인 가정, 9남매 중 장남, 청어 상점 점원인 아버지, 야채 행상 어머니, 가난, 그리스 정교회당, 유대인

예배당, 한적한 시골의 비테프스크, 할아버지 기도, 27 루블, 상트페테르부르크, 1730 년 동유럽 일대에서 시작된 신비 유대교 하시디즘이다. 엘리트주의에 반대하고 직접적인 교감을 강조한다. 죄인의 영혼은 사후 동물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교리가 있다. 이런 하시디즘은 샤갈 작품 속에서 염소는 어머니와 조국 또는 연인으로 수탉은 남성과 태양, 속죄할 때 바치는 새, 베드로가 예수 님을 부인하는 상징으로 삼았다.

러시아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거주증 또는 특별 허가증이 없는 유대인은 살 수 없었다. 하지만 샤갈은 빅토르 메클레르라는 친구 도움으로 왕립 미술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일화가 하나 있다. 샤갈 아버지 카츠키 샤갈은 상트페르부르크로 떠나는 샤갈에게 27 루블을 탁자 아래로 던졌다고 한다. 미술 공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내 비친 대목이다. 이때가 1907 년이다.

1908 년 샤갈은 바크스트 미술 학교로 전학하면서 세잔, 고갱 작품을 보고 탐구 한 시기였고, 1909 년에 고향에 잠시 다니러 왔다. 그때 샤갈은 이 작품 Young Girl on a Sofa (Mariaska. 1907)을 가족 모두에게 선보였다. 반응은 모두 호의적이었다. 특히 아버지 샤갈은 화가의 길을 나선 아들 샤갈을 응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리아스카는 샤갈 막내 여동생이다.

응원군을 잔뜩 얻은 샤갈은 당시 여자 친구인 테아와 산책 중이었다. 그때 다리 위에서 운명의 여인이고 뮤즈인 벨라 로젠벨트와 샤갈은 눈이 마주쳤다. 샤갈은 "그녀의 침묵은 내 것이었고, 그녀의 눈동자도 내 것이었다. 그녀는 마치 내 어린 시절과 부모님, 내 미래를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고, 나를 관통해 볼 수 있는 것 같았다." 라며 테아가 눈치챌 틈도 없이 사랑에 빠졌다. 샤갈은 22 세 벨라는 나이 14 세였다.

1907년 작품 마리아스카 특징으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은 곡선이다. 이를 두고 샤갈은 데생에는 소질이 없고 색채는 천재적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데생 실력 여부는 차지하고 이 작품을 중요하게 보는 까닭은 이 작품 이후 샤갈 작품 속 인체 묘사 기법은 대부분 곡선이라는 점이다. 에곤 실레 인체 묘사 방식과는 대조적인 점이 떠 오른다. 마치 미래 샤갈 작품의 복선과도 같은 작품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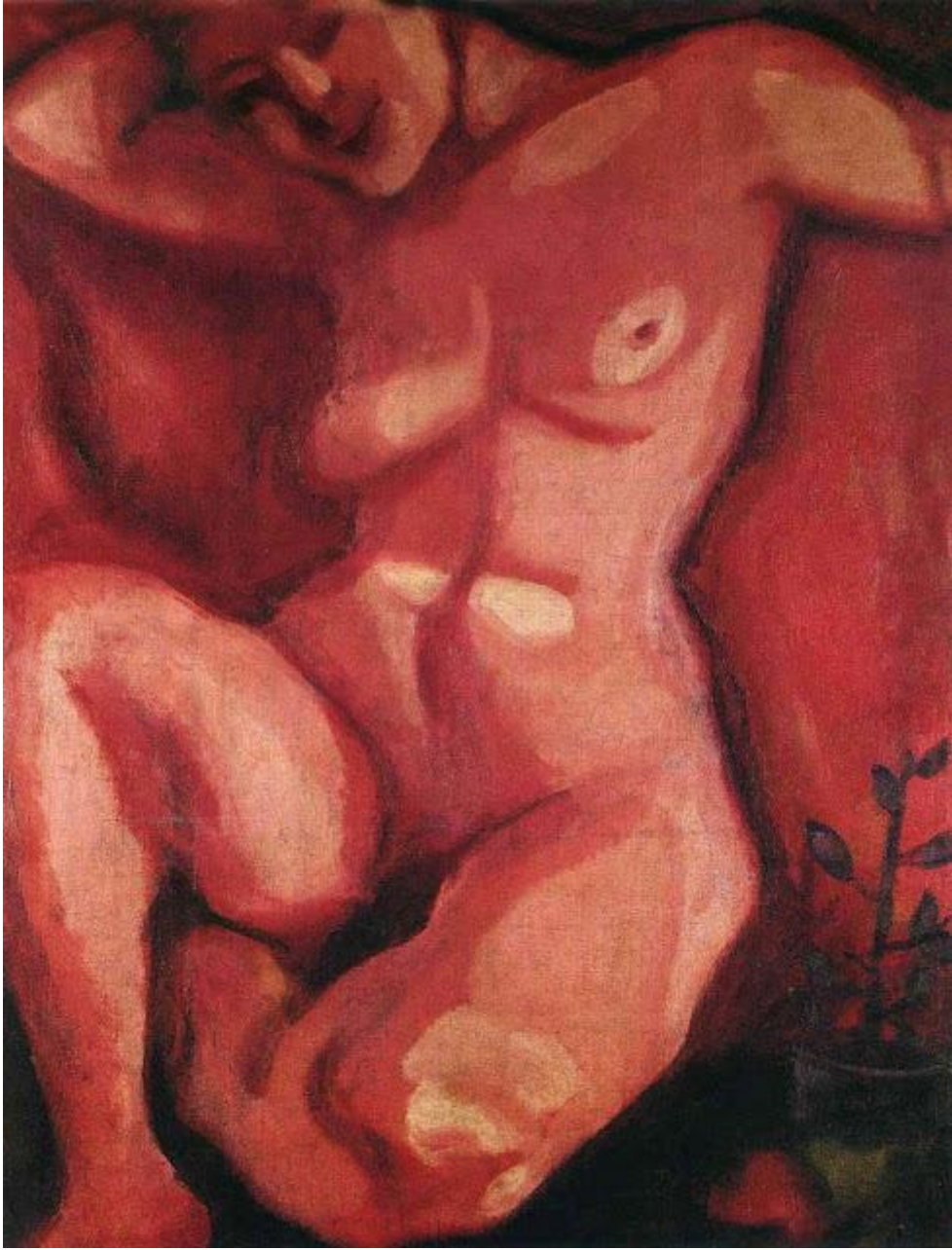
1904. Standing Nude.

Marc Chagall(1887 – 1985, 러시아 제국)

1. 16. 일.



1908 A House in Liozna oil on paper 37 x 49 cm Tretyakov Gallery, Mosc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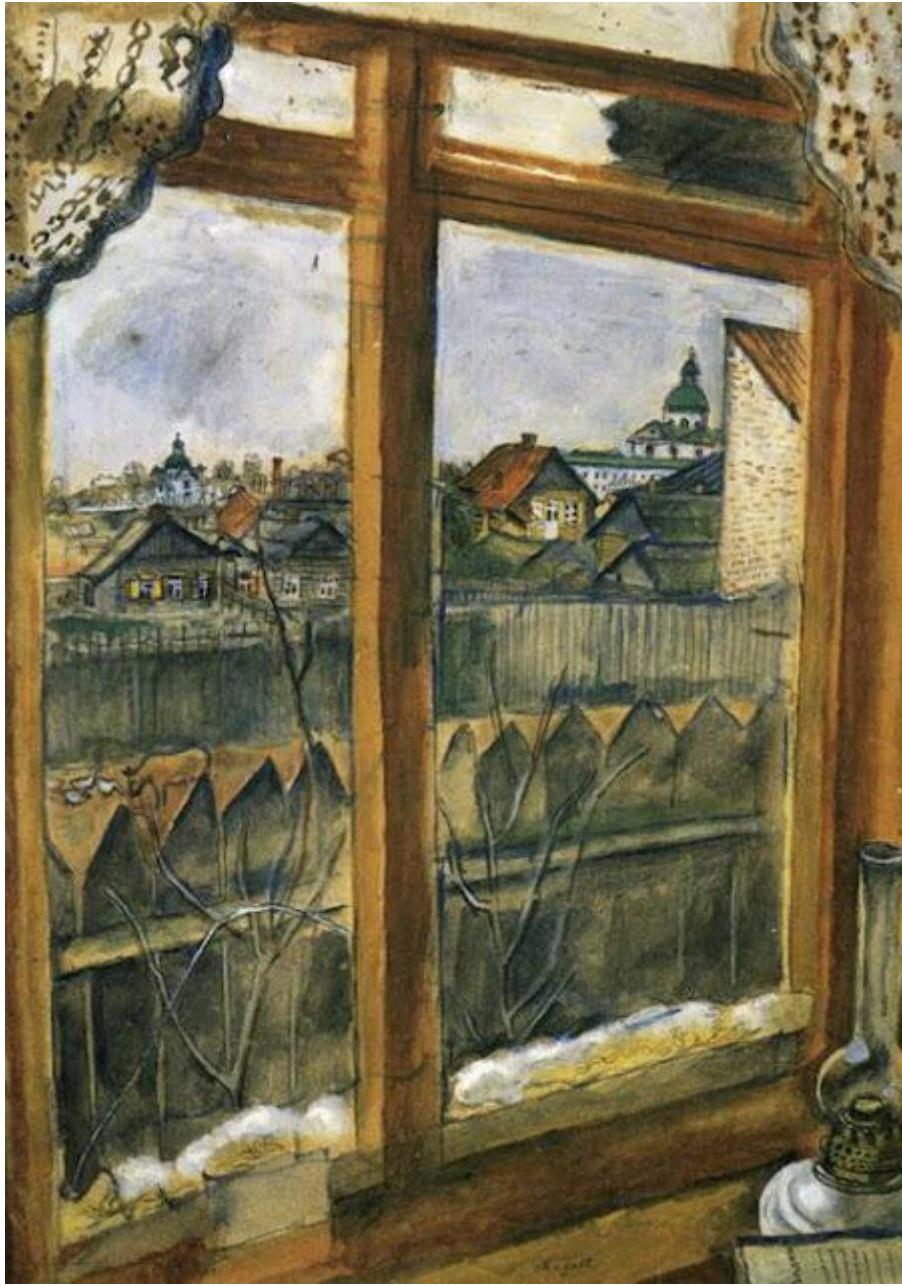
1908 Red Nude Sitting Up oil on canvas 90 x 70 cm State Hermitage Museum, St Petersburg, Russ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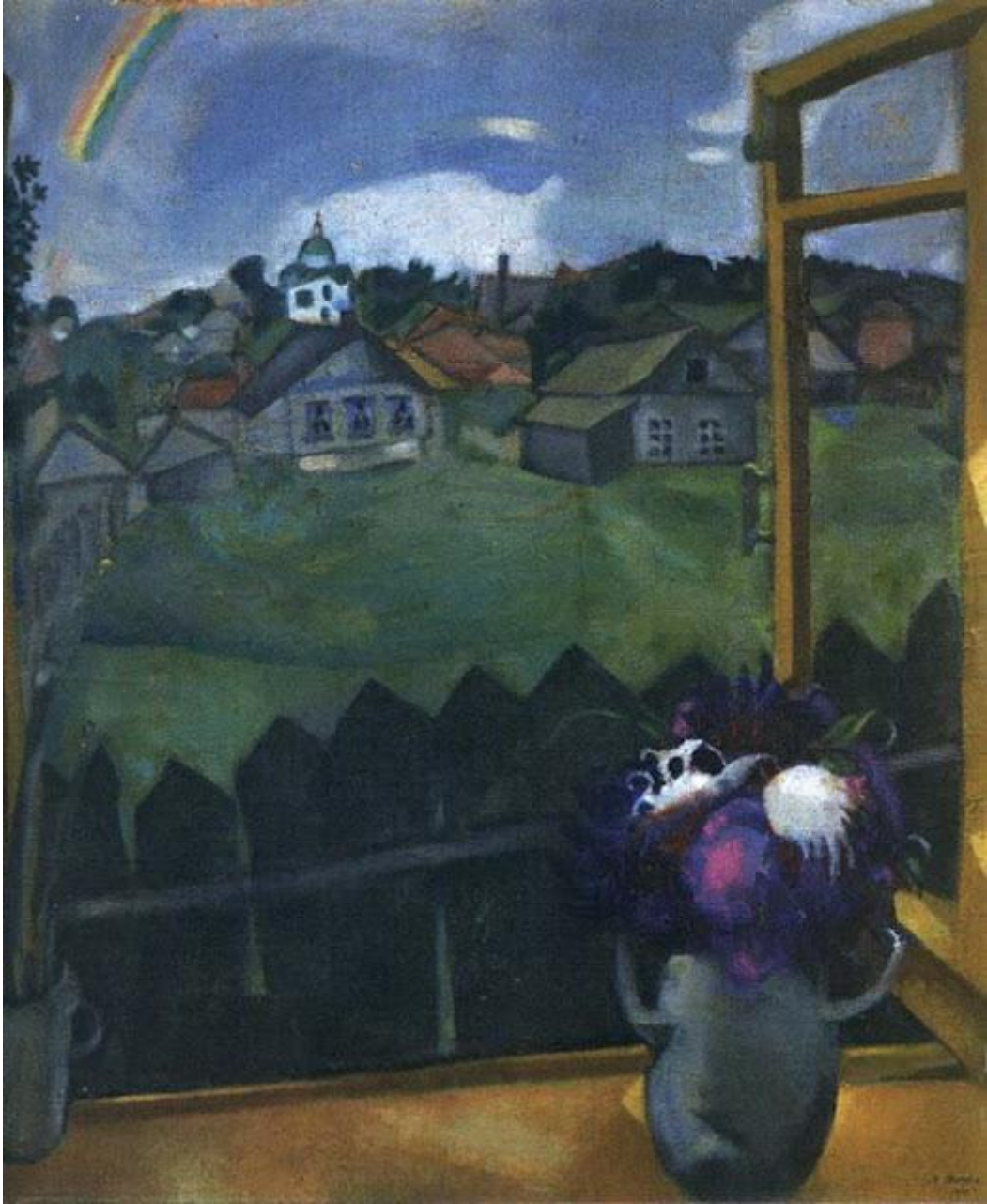
1908 Small Drawing Room oil on paper 22.5 x 29 cm Private Collection



1908 The Dead oil on canvas 28.8 x 68 cm Musée National d'Art Moderne, Paris



1908 View from a Window. Vitebsk gouache on cardboard 49 x 36.3cm Tretyakov Gallery, Moscow



1908 Window, Vitebsk oil on canvas 67 x 58cm Private Collection

샤갈이 학교를 떠나 미술 교육을 전문가에게 받기 시작한 해는 기록에 따르면 1906년 비테브스크에서 유대인으로만 구성된 사립학교를 운영한 러시아 초상화가 Jehuda Pen 화실부터이다. 그다음 해인 1907년 샤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유대인 출신 무대 디자이너 Leon Bakst에게서 회화 공부를 이어갔다. Bakst는 유대인 이미지를 작품 주제로 독려했고, 러시아의 유대인 탄압에 대한 적대감을 이 당시 샤갈에게 배양시킨 듯하다. 또 다른

기록에는 1908 년 샤갈이 세잔과 고갱을 알게 되었다고 전한다. 1912 년 샤갈 작품 Still Life 를 보면 세잔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1912. Still Life

여기 소개하고 있는 6 점은 1908 년 샤갈 작품이다. Bakst 화실에서 그렸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파리로 간 해가 1910 년 임을 감안하면 아니라고도 할 수 없다. 6 점 중 Bakst 가 독려한 유대인 상징을 담은 작품은 'The Dead', 그 유대인이 모여 살고, 가족이 있는 고향 비테브스크를 담은 작품은 'A House in Liozna' 'View from a Window' 'Window, Vitebsk' 세 점, 특히 Liozna 작품은 유대교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비테브스크 내

특정 장소인 듯싶다. 이 역시 Bakst 영향처럼 보였다. 나머지 두 작품은 작품 소재에 있어 평범하다.

누드는 화가의 고전적인 소재이고, 방 안 풍경은 화가로서 구도를 익히는데 있어 습작으로 그려봄직 하다. 1889년 고흐 작품 *The Bedroom* 를 연상하게 한다. 한데 평범하고 습작처럼 보이는 두 작품 특징은 배경이 모두 붉은색이란 점이다. 러시아 제국의 유대인 탄압, 비테브스크로 강제 이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 같다. Bakst 가 잊지 말라고 한 그 말을 샤갈은 작품에 녹인 듯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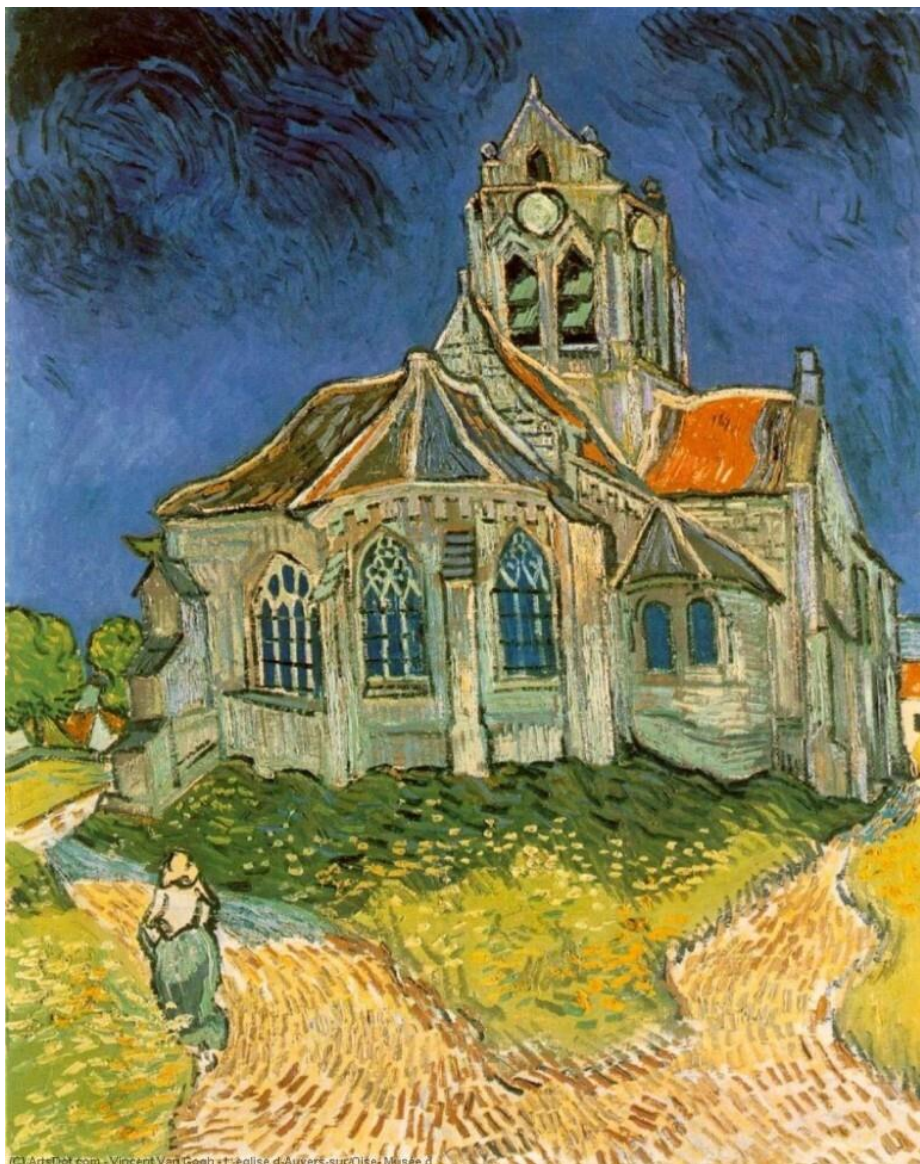
이런 붉은색에 대한 상징은 두 차례 세계 대전 시기 작품 곳곳에서 고양되었다. 하지만 1952년 60세 때 만난 두 번째 부인 바바와의 결혼은 붉은색을 적대감에서 로맨티시즘 상징으로 전환했다. 그 작품이 프랑스 니스 샤갈 박물관에 있는 'Song of Songs' 연작, 솔로몬의 아가로 불리는 성서 이야기를 샤갈 자신과 바바와의 운명을 축복하는 작품이 그것이다.

Marc Chagall(1887 – 1985, 러시아 제국)

1. 16. 일.

샤갈 · 고흐 · 에곤 실레 작품 감상

Marc Chagall & Vincent Van Gogh(1853 - 1890) · Egon Schiele(1890 - 1918)
Church & House



1890 The Church at Auvers,1890,oil on canvas, 74 x 94 cm



1908 A House in Liozna oil on paper 37 x 49 cm Tretyakov Gallery, Moscow



1915 egon-schiele-house-with-shingle-roof-old-house-ii-pa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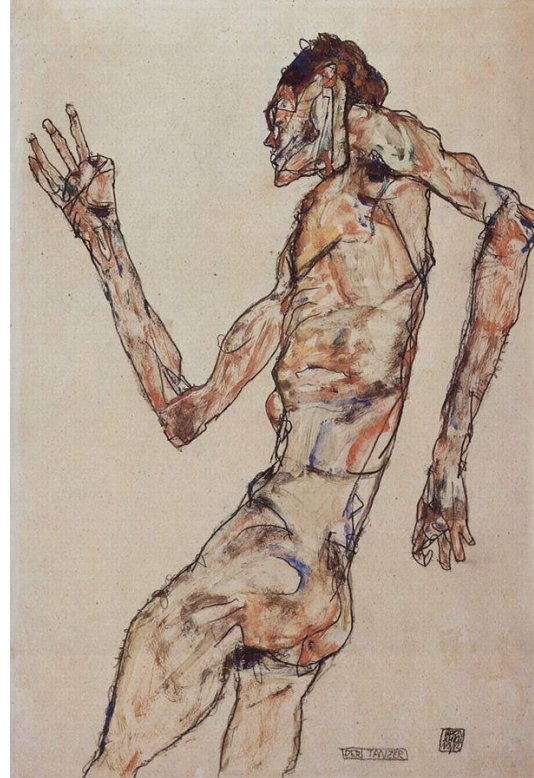
Marc Chagall & Vincent Van Gogh.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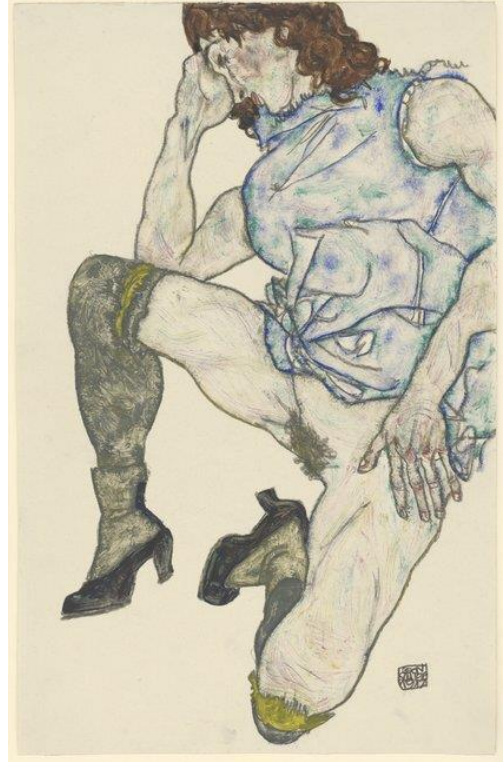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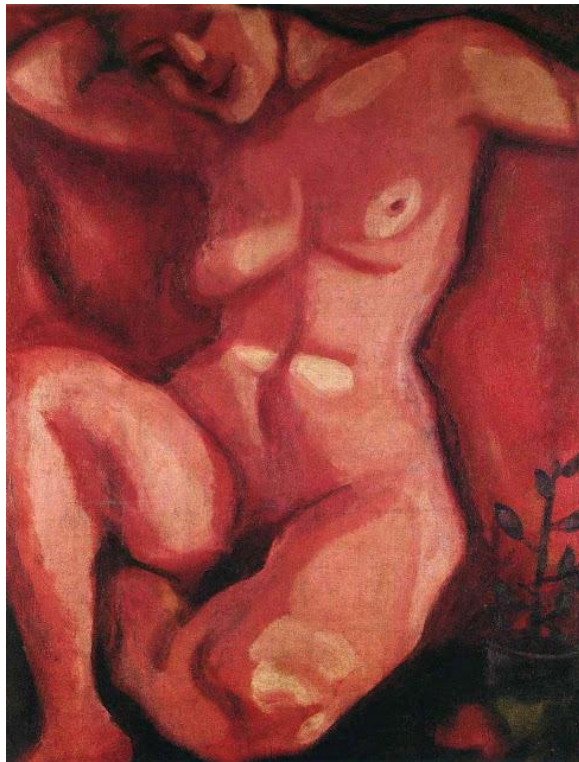
1889 The Bedroom. Gogh.



1908 Small Drawing Room oil on paper 22.5 x 29 cm Private Collection. Chagall.



1904. Standing Nude. Chagall / 1913. The Dancer. Egon_Schiele



1908 Red Nude Sitting Up oil on canvas 90 x 70 cm State Hermitage Museum, St Petersburg, Russia / 1917 egon_schiele_squatting_gir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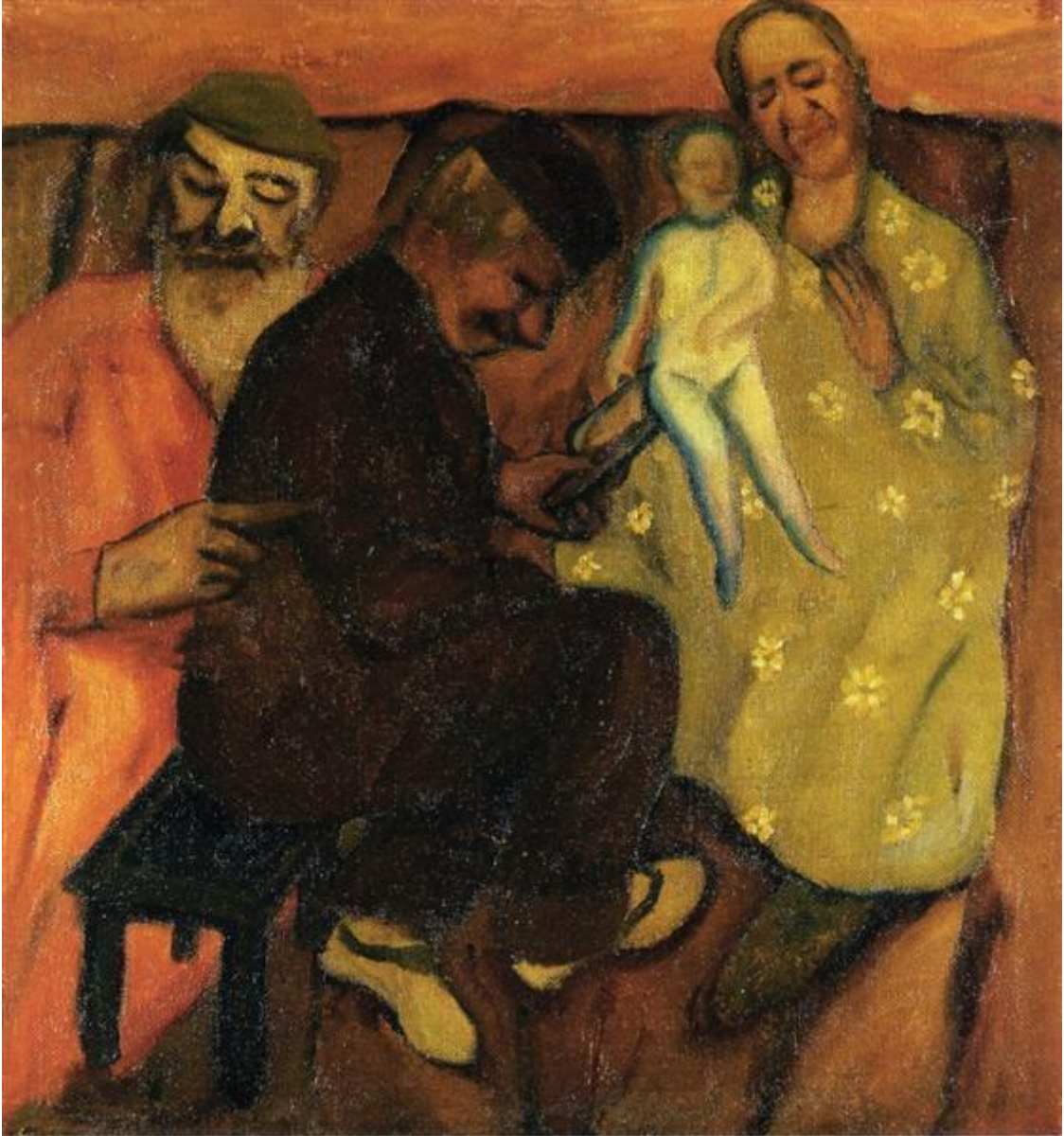
Marc Chagall(1887 – 1985, 러시아 제국)

1. 19. 수.

1909 년 작품 감상



1909. sabbath



이 작품은 Wiki art에서는 1909. Circumcision.71,7x77,8로 되어 있고, marcchagallart.net에서는 The Family or Maternity로 되어 있다. '샤갈, 내 영혼의 빛깔과 시, 김종근' 책에는 가족(모성)으로 쓰고 있다.



1909. Russian Wedding. Oil on canvas. 68 x 97 cm. Foundation E.G. Bührle collection, Zurich, Switzerland.



1909. Self Portrait with Brushes. 48x57



marcchagallart.net 에는 1909. The Couple (A Holy Family)103x91 로
'샤갈, 내 영혼의 빛깔과 시, 김종근 著 에는 '부부(聖家族)'로 쓰고 있다.



arthive.com 에는 1909. Bella in Black Gloves. marcchagallart.net 와 facebook.com/Chagall.ArtPost 에는 1915 작품으로 소개하고 있다.

1909 년은 샤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절이다. 레온 바크스트 즈반체바 미술학교 교장이 샤갈을 학생으로 맞이하고, 제자로 삼았던 시기다. 당시 바크스트는 샤갈에게 무척 애정이 깊었다.

"샤갈은 내 애제자다. 그는 내 설명을 경청하고 나서 붓과 파스텔을 손에 쥐고는 내 그림과는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한 그의 독특한 개성과 기질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은 그런 연유에서다"

바크스트가 전한 샤갈에 대한 인상 평이 재밌다. 한 마디로 말하면 자기 얘기는 잘 들었지만 그림은 샤갈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작품이 독특했다. 그래서 샤갈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 쯤. 해서 그런지 바크스트는 샤갈에게 파리로 갈 것을 부추겼고, 1910 년 샤갈은 파리로 갔다.

'검은 장갑을 낀 벨라' 또는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라고도 하는 작품은 1909 년 또는 1915 년 작품으로 소개되고 있다. 샤갈이 벨라를 처음 만났을 때가 1909 년이고, 1915 년은 결혼한 해이다. 검은색 배경은 샤갈 초기 작품 즉, 파리 이전 작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장센인 점을 감안하면 1909 년 작품이라는 설명이 좀 더 무게감이 실린다.

▷ 1904 년, 1906 년, 1907 년 작품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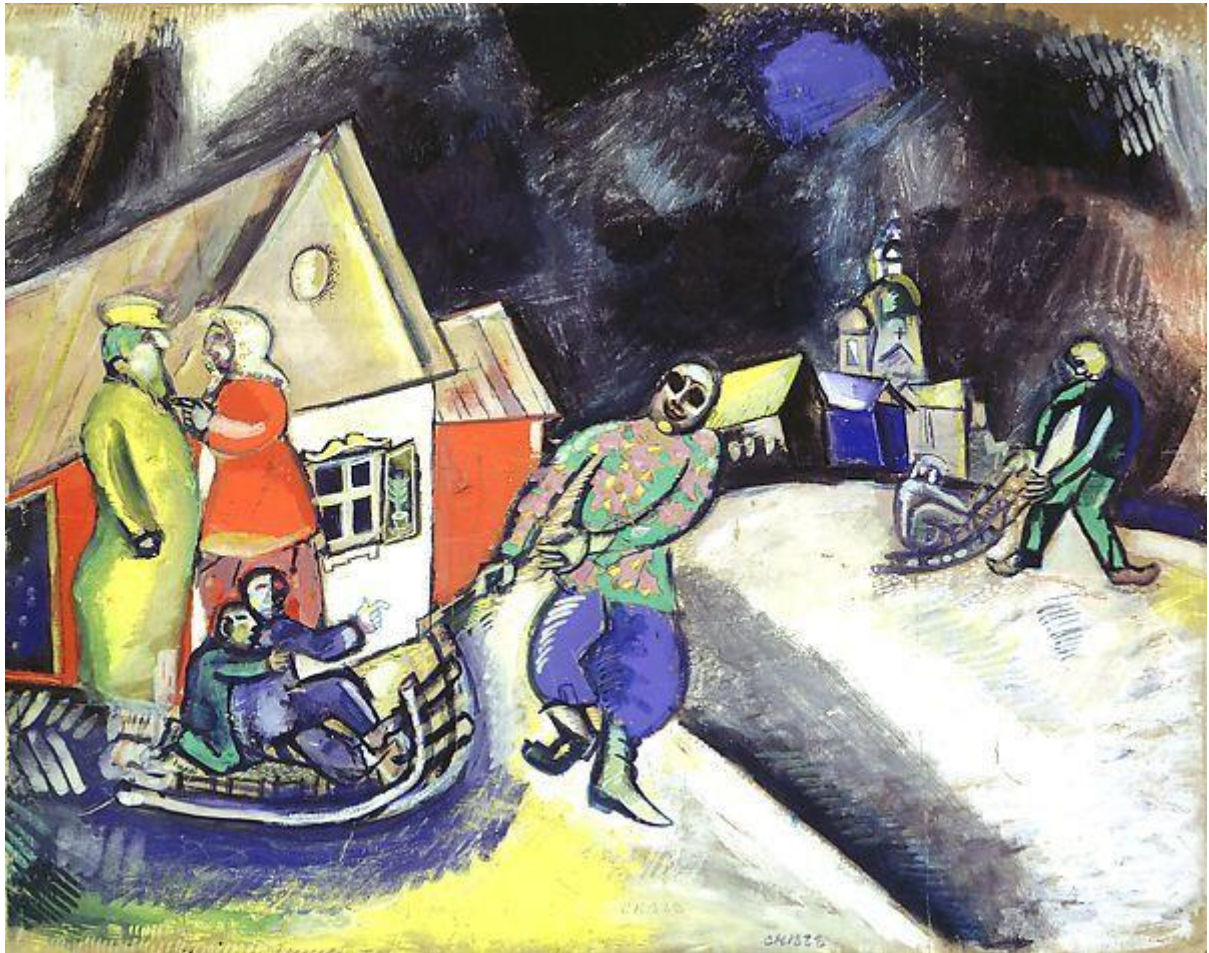
<https://blog.naver.com/hfeel/222622703144>

▷ 1908 년 작품 감상

<https://blog.naver.com/hfeel/222622715623>

Marc Chagall(1887 – 1985, 러시아 제국)

1. 19.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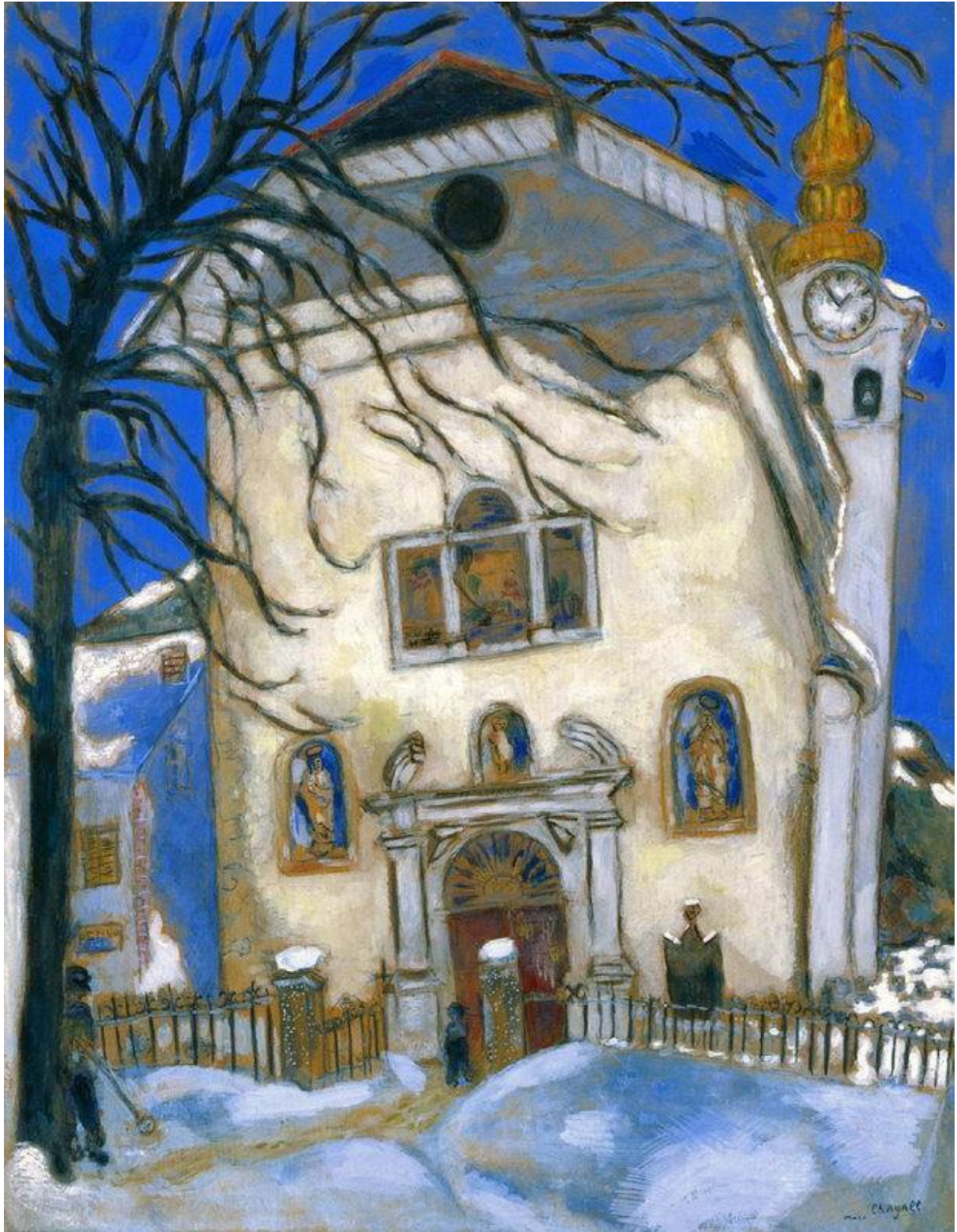
1911. Snow Bitebs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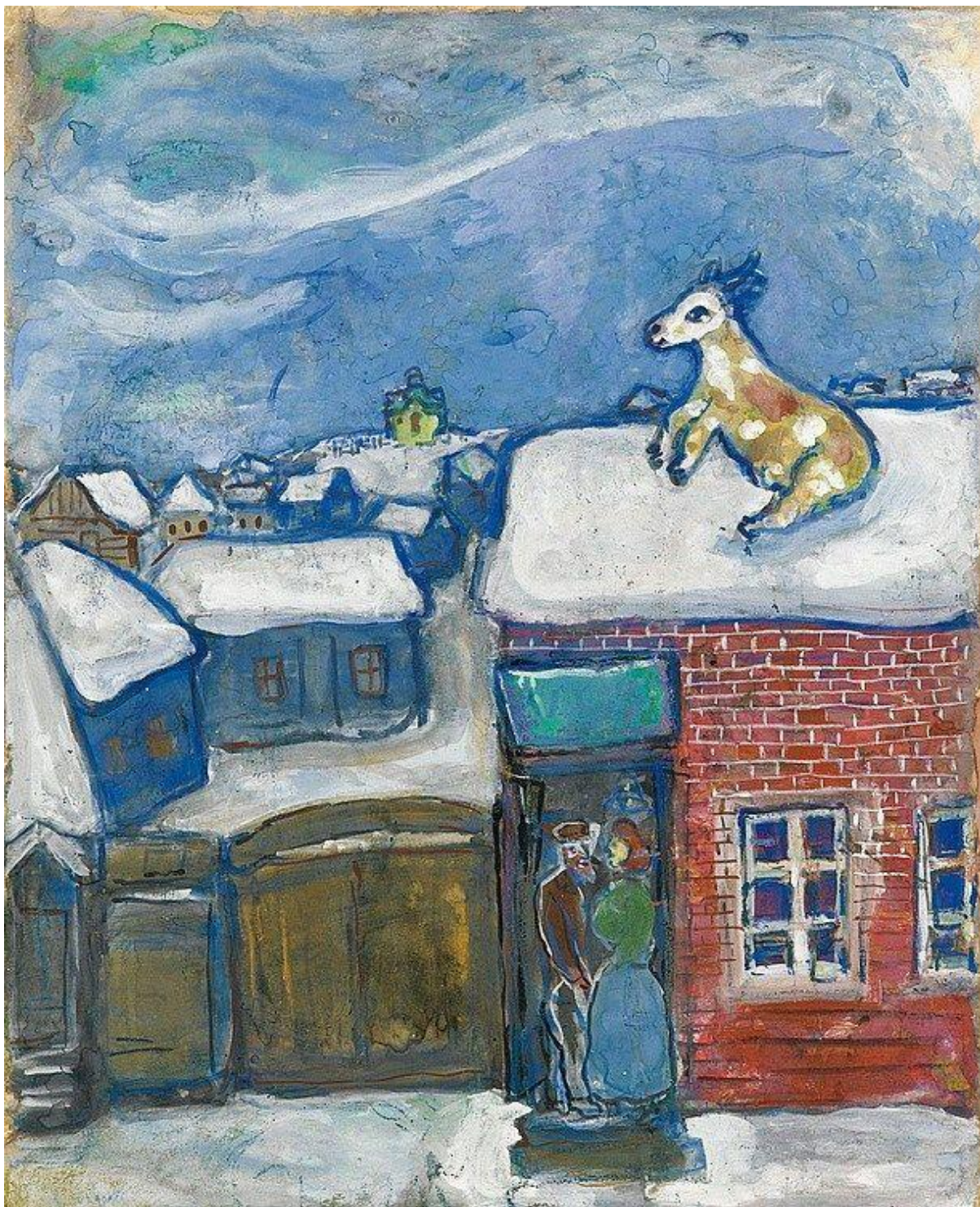
1914. Sopra Vitebsk



1927. Dans Les Alpes (savoie). 알프스 사부아에서



1927.Snow Covered Church



1930.A Village Winter



Winter Night

눈이 내린 날은 샤갈이지!!! 예쁘게 눈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커튼을 열었다. 눈과 바람이 술래잡기라도 하는 듯 바람이 눈을 쫓아가는 듯싶다가 눈이 바람을 쫓는다. 이들 모습을 창으로 보는 나는 마냥 즐겁다.

눈이 내리는 샤갈 마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역시 단연 썰매 타기(1911. Snow Bitebsk)다. 내 어린 시절 겨울 한 편과 다르지 않아 보였다. 이 작품을 그때 봤다면 내 그림 일기 숙제 한 장을 장식했을 것 같다.

1 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해 비테프스크 눈 내린 날(1911. Snow Bitebsk)은 러시아 제국의 핍박으로 모여든 비테프스크를 다시 떠나야 하는 샤갈의 침통함이 내리는 흰 눈과 떠나는 검은 색으로 표현했다. 참 이상한 일은 그런 날은 유난히 겨울 중 가장 춥고 날씨도 매섭다. 눈은 차고 단단하다.

가슴을 더 후벼 파는 것은 발자국 조차 남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들키면 안된다라는 긴장감이 눈 속에 파묻혀 있다. 그래서 샤갈 마을에 눈이 내리면 그 흔한 발자국이 없었구나. 고향을 이렇게 떠나야 하다니, 슬프고 가슴은 저미고 서럽다.

잊을 수 없는 그 시간이 강물따라 흘러가고 어느 날 알프스 사부아에서 창을 통해 본 겨울은 심심할 뿐이다. 첫눈이 내린 날 비테프스크가 떠 오른 샤갈, 그중에서 곧 솟아 오를 듯 꿈틀꿈틀 숨고르기를 하는 예배당은 샤갈의 정신적 고향이다. 오후 2시 샤갈은 기도를 한다.

"내 고향 비테프스크는 사람과 동물이 평범한 일과를 빛는 곳이다. 누구나 만나는 일이 즐겁고 따듯한 차를 함께 마신다. 압제가 있는 곳이지만 서로를 의지하고 탓하지 않는다. 토라 한 구절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눈처럼 쌓여 한 장을 넘기면 흰 눈 같은 이불을 턱끝까지 끌어 올린다. 눈이 쌓이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는다. 꿈이 쏟아진다."

Epilog



1909.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

"나는 벨라를 위해 기념비적인 작품을 한 점 완성했다. 바로 '검은 장갑을 낀 피앙세'이다. 단정하게 다문 입술과 두 손을 허리에 댄 모습으로 나는 엄격한 인상의 벨라를 표현했다. 아, 운명적인 벨라와의 만남, 그녀는 나를 기다릴 것이다...

1909년 샤갈은 벨라를 처음 만났다. 그때 첫 느낌은 침묵이 흘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은 나의 것, 그녀의 눈도 나의 것, 마치 그녀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고 나의 유년 시절과 현재, 미래까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샤갈은 벨라가 자신의 아내임을 알았다고 했다. 샤갈은 벨라의 첫인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눈, 그녀의 검은 눈은 얼마나 크고 둥근지! 그것이 바로 나의 눈, 나의 영혼이었다'

벨라가 남긴 샤갈의 첫인상은 아직 찾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다. 벨라는 샤갈의 비테프스크 화실을 드나들었고, 기꺼이 모델이 되어 주었다.

'방 안은 어둡고 나는 당신에게 키스를 했지. 당신은 나를 위해 포즈를 취했고. 아, 당신의 하얗고 둥근 몸, 내가 어떻게 당신의 순결한 몸을 만졌을까. 난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드를 봤는데! 당신은 몸을 구부렸지. 나는 당신을 그렸어. 그리고 성스러운 양 그 그림을 벽에 걸었지'

연인이면서 뮤즈가 된 벨라를 샤갈은 처음 캔버스에 담았다. 그 감격과 성모보다 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벨라에 대한 사랑을 샤갈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벨라에 대한 이 성스러움은 말로 그치지 않았다. 검은 배경에 흰 드레스를 입은 벨라의 모습은 샤갈이 벨라를 처음 본 그 아름다움을, 허리에 양손을 댄 벨라의 포즈는 샤갈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 까닭을

말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벨라의 이목구비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고해성사를 하는 샤갈의 영혼이 고스란하다.

샤갈의 수많은 작품에는 이런 벨라가 솔하게 등장한다. 벨라는 샤갈의
시였고, 시어였다. 샤갈의 그 시적 레토닉이 보석처럼 빛나는 작품으로 이
작품은 단연 으뜸이다. 사랑에 빠진 그 순간을 더 올릴수록 이 작품의
향기는 점점 더 짙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와 수수한 달 빛을 받으며 내
앞에 섰던 그 사람을 만난 첫날 그 순간이 이 작품 속에 오롯이 배어 있다.
그날 우리 사이에도 침묵이 흘렀었다. 하지만 내 영혼이 당신에게
깃들었다는 첫 말을 하지 못했다.